

## 사우회 가을철 행사 모두 마쳐



올해 가을철 행사가 11월 골프대회를 마지막으로 모두 끝났다.

10월 25일 열린 등반대회는 북한산 둘레길 1구간 소나무숲길과 2구간 순례길 구간에서 열렸다. 회원 60명은 오전 10시 둘레길 2구간인 아카데미하우스 입구에서 출발해 북한산 우이령전철역 입구까지 5.5km 구간을 2시간 정도 걸었다. 화창한 날씨 속에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북한산의 깊어가는 가을정취를 만끽한 유쾌한 등산이었다. 이번 산행에서 가장 연장자(86세)인 김세중(관리) 회원은 젊은이 못지않은 건각을 과시했으며, 유일한 여성인 강복주(대전) 회원은 지난 봄에 이어 이번에도 참

여했다. 안영순(관리) 회원은 충북 음성에서 올라와 이번에도 가장 멀리서 산행에 참여한 기록을 남겼다. 등반도중 강북구청에서 파견된 이종구 숲해설자는 2구간의 순국선열 묘역에 얹힌 일화를 회원들에게 자상히 설명해 회원들의 박수를 받았다.

사우회는 참가 회원들에게 타월과 찻술, 치약, 샴푸 등을 제공했으며 박한성 등산동호회 회장은 여주 쌀 홍보대사(이윤성)가 증정한 여주 햅쌀을 선물했다.

바둑대회는 11월 1일 오전 10시 사우회 사무실에서 40여명의 바둑동호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는, 지난 봄 대회 때 B조로 출전해 우승을 차지했던 이창호(기술)회원이 A조로 승격 출전해 우승을 함으로써 같은 해 A, B조 우승을 싹쓸이하는 진기록을 세웠으며, A조 준우승은 정태식(기술)회원이

차지했다. B조에서는 권상규(관리)회원이 우승을, 장용택(관리)회원이 준우승을 각각 차지하는 등 기술부문과 관리부문 회원들이 A, B조 수상을 독점했다. 이 밖에, 매월 1, 3주 수요일마다 개최되는 친선 바둑 모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한 육창웅(편제)회원을 비롯해 정영수(관리), 이한익(기술), 김세중(관리), 이종성(기술)회원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대회 때마다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박종완(관리)회원은 박종규 바둑동호회장으로 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낚시대회는 9월 22일 오전 6시 김포시 하성면 봉성리 낚시터에서 열렸다. 22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 안호선(관리) 회원이 21cm의 붕어를 낚아 우승을 차지했다. 2등은 16.5cm의 붕어를 낚은 김휴선(보도) 회원, 3등은 이한익(기술) 회원이 각각 수상했다. 한편 행운상은



17cm 짜리 잉어를 낚은 정인영(편제) 회원이 차지했다.

골프대회는 11월 7일 오전 다섯 팀이 참가한 가운데 진천군 에머슨골프장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영예의 우승은 78타를 기록한 김용빈(기술)회원이 차지했다. 준우승은 김우룡(편제)회원, 롱기스트는 245미터를 친 이상진(보도)회원, 니어리스트는 1.5미터를 기록한 문기영(관리)회원, 행운상은 99타를 기록한 김철호(보도)회원이 각각 차지했다. 이날 김우룡 회원은 참가 회원들에게 비타민 세트를 선물해 회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 금년 사우회 송년모임은 취소하기로 결정 원로 문화탐방행사도 실시하지 않기로

사우회는 12월 14일로 예정했던 금년도 송년모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연현 사우회장은 10월 23일 “최근 본사의 파업사태가 장기화되고, 방송 주변 여건도 여의치 않음에 따라 본사와의 협의를 거쳐 송년모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회원 여러

분들의 너그러운 이해가 있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년모임이 취소됨에 따라 해마다 송년모임 때 회원들에게 배부했던 회원 전화번호 수첩은 내년 총회에서 전달하게 된다. 또한 당초 10월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2017 주계 원로 문화탐방’ 행사도 금년에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회비납부에 관한 안내말씀

사우회 발전을 위해 회원들께서 매년 납부하시는 회비는 사우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회원 여러분의 경조사에도 사용됩니다. 그러나 회무규정 제 4조에는 “연회비를 5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들에게는 경조비를 지급하지 않으며”라고 규정함으로써 경조비 지급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회비 미납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경조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살피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 납부 관련 정보는 사우회 홈페이지(mbcsau.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사무처로 연락하셔도 즉시 확인하여 드리니 참고하셔서 회비 장기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회비납부계좌: KEB하나은행  
158-890070-29405

### MBC C&I는

드라마·교양·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콘텐츠  
제작·유통에서부터 방송 중계·편집 등  
방송시스템 및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차별화된 방송 인프라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방송문화산업의  
새 지평을 여는 핵심 주역이 되겠습니다.





## 수하樹下 민예박물관을 가다



한 귀현  
(업무, 편집위원)

단풍이 절정을 이룬 별 좋은 가을날, 박수부(업무, 서울중앙로타리클럽 총재) 형이 세운 민예박물관을 보러 강화 땅을 밟았다. 강화대교를 건너 왼쪽으로 5분쯤 달리면 팔만대장경 목판을 새기던 옛 선원사 절터가 나오고, 그 앞에 천여 평의 널따란 대지 위에 노송으로 둘러싸인 3층짜리 집이 있다.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반갑게 맞아주는 형의 안내를 받아 현관에 들어서서 순간, 와! 각종 민예품을 비롯해 이름도 모르는 살림도구들, 서책, 크고 작은 방송장비들이 방안 가득 자리 잡고 있다. 궁금증을 풀기 위해 인터뷰에 돌입했다.

**-수하는 무슨 뜻이고, 이렇게 많은 물건들을 언제부터 수집하셨나요?**

수하樹下란 저의 호號입니다. 어린 시절을 할아버지 슬하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레 한국적, 민속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됐구요, MBC에 근무하던 30대 때부터 인사동을 오가며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범위에서 조금씩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방송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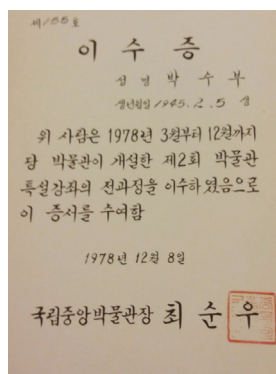
작을 하다 보니 나 자신 재충전을 위한 취미생활이 필요했고 그 방향을 민예품 수집으로 잡은 거죠. 1978년에는 국립박물관 특설과정도 이수했습니다. 민예품 수집으로 유명한 일본의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의 영향도 다소 받았구요.

**-박물관이 상당히 커 보이는데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보시다시피 3층 건물에 각 층 50평씩 총 150평입니다. 3층은 사무실이고요, 2층은 민예품 전시장, 1층은 방송장비를 전시했습니다.

**-각 층을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주시겠어요?**

1층 50평은 반지하 형태로, 방송 특히 CM 관련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무관계상 오랫동안 모은 방송관련 장비들 중에 덩치가 큰 것은 광고문화회관에 기증했구



요, 규모가 작은 녹음기, 콘솔, LP 판, CD 등을 전시했습니다. 한 쪽에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어떤 음악을 듣고 싶다 하면 바로 감상할 수도 있죠. 2층은 전체가 민예공예품인데, 주 종목은 옛 선비들이 애용하던 문방사우(文房四友)를 비롯해서 각종 껌작, 떡살같은 살림살이 물품들로 모두 400여점 가량 됩니다. 3층은 향운, 향습 처리가 된 수장고와 제 개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정식 개장은 아직 안 하신거죠?**

그렇습니다. 내년 3월 개관할 예정이구요, 지금은 도록을 만들고 브로슈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예박물관을 강화도에 건립하게 된 이유라도 있나요?**

20년쯤 전에 강화도에 놀러왔다가 늙은 소나무가 인상적인 시골집이 너무 좋아서 수소문 끝에 사게

됐는데, 서울에서도 가까운 거리니까 은퇴한 뒤 이곳에서 소중한 분들과 많은 시간을 갖고 싶어서 아예 살림을 몽땅 옮겨 온 셈이죠. 이런저런 거 구경하면서 같이 좋은 시간 보내면 좋잖아요?

**-그렇군요. 이 박물관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라도 있으신지요?**

MBC라는 큰 나무 덕택에 오늘날의 제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지금껏 받은 사랑을 이제는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소중한 문화유산을 다 같이 공유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로타리클럽에서 봉사하는 정신과도 일치합니다. 수익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사우회원들께서도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들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조사

## ■ 팔순 ■

안계홍(편제)12/05 김종환(기술)12/26 홍윤호(보도)01/01  
정준모(관리)01/07 홍환식(기술)01/15 김상근(전주)01/24

## ■ 고희 ■

김승한(보도)12/01 김신명(관리)12/07 고석만(편제)12/09 최정일(관리)12/16  
윤상호(기술)12/18 최종결(보도)12/20 이강용(업무)12/21 정각중(기술)12/22  
최우철(보도)12/26 최병태(관리)12/30 이오기(편제)01/01 조복현(기술)01/04  
오명균(편제)01/19 정영수(관리)01/25

## ■ 회갑 ■

정남영(관리)12/02 차경호(보도)12/03 이상원(기술)12/04 김영수(관리)12/06  
이의린(관리)12/07 황용기(편제)12/10 김사성(관리)12/14 신상용(편제)12/22  
최근진(기술)12/25 배수한(관리)01/06 이우철(기술)01/18 진경현(편제)01/19  
옥은경(관리)01/21 최근식(보도)01/27 윤영무(보도)01/24

## ■ 결혼 ■

백종문(편제)장녀 09/30 이주갑(편제)장녀 10/21 정호준(기술) 딸 10/28  
박흥영(편제)아들 11/04 유재식(관리)장남 11/11 신견옥(임원)장남 11/18  
정석진(보도)차녀 11/18 이석현(편제)차녀 11/26

## ■ 부음 ■

김갑수(관리)모친상 09/17 이석일(보도)장인상 09/30  
이한수(편제)장인상 10/09 정홍보(보도)모친상 10/14  
노성석(관리)장모상 10/30 박창복(업무)장모상 10/30

## 회원 / 회비관리

## ■ 신규입회 ■

김갑순(관리) 010-9105-2101 경기도 파주시 가운로 205

## ■ 평생회비 ■

김갑순(관리)11/02

## ■ 연회비 ■

9월 : 하민웅('17) 황기찬('17) 황학구('15)  
10월 : 곽노우('16~'17) 김경일('17) 金榮日('17~'18) 김종연('17)  
신낙균('15~'17) 신대근('17) 유경희('05~'14) 이기주('16~'17)  
11월 : 권상규('16~'18) 김휘성('16~'17) 박창복('15~'17) 이상열('06~'17)  
장용택('17, 80세 납부 끝) 한승영('16~'17) 황학구('16~'17)

## 번호 / 주소 변경

임원 : 고영일 경기 군포시 고산로 185번길 31  
신낙균 은평구 진관길 1  
편제 : 강철호 경기 하남시 위례광장로 285  
김병택 010-5442-5966  
박경희 인천시 서구 검단로 836  
안택호 서초구 나루터로 4길 61  
이임생 010-9700-7233  
보도 : 김성수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ANN : 변웅전 광진구 아차산로 637  
기술 : 이원하 강남구 광평로 34길 55  
장정기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64  
조병락 010-8915-2411 서대문구 통일로 34길 43  
업무 : 신복남 전북 익산시 선화로 41  
천기정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관리 : 경진근 경기 고양시 덕양구 명봉산로 6번길 119  
권영만 경기 하남시 상암로  
김애희 010-2263-0042 경기 포천시 일동면 수입로 141번길  
김영만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포승향남로  
마동익 010-9595-0574  
윤재복 동작구 사당로 27길 130  
이강식 영등포구 국회대로 54길 10  
이하결 경기 파주시 와석순환로 16  
전미경 010-7336-8550 정종국 강서구 허준로 121  
미주 : 곽창곤 North River Trail Marietta, GA 30066 USA  
정진철 Manhattan PI #501, LA CA90005 USA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이상혁(업무)

10월 17일 폐렴으로 별세했다. 향년 66세.

1977년 업무국에 입사해 광고영업을 담당하다가 1981년 한국광고공사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퇴직했다.



## 유경희(업무)

10월 25일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1962년 업무국에 입사. 광고업무에 종사하다 1975년 10월 연합광고로 자리를 옮겼다. 연합광고 이사를 거쳐 세현인터내셔널 부사장을 역임했다.



(주)에이치디비엔티는 방송장비의 설계 및 개발 보급하는 국산 브랜드 회사입니다

각지방사 (KBS,MBC,SBS) 지역국 및 중편/P.P사 등 다수의 방송장비를 공급함으로써 방송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설계/개발에 반영하여 단품하나하나에도 끊임없이 연구개발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UHD방송시대를 맞이하여 2016년부터 UHD관련된 개발사업에 연이어 착수했으며, 2017년 KOBIA 전시회를 통해 UHD관련된 장비를 선보였습니다.

## DPIC &amp; MCFS



BTS-802R



BTS-8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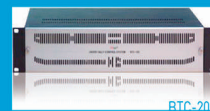
DPIC-401

Audio File System 연동  
자동송출 System 연동  
각각의 채널 Fade IN/OUT 제어

- Audio Input : 8CH(Digital or Analog)  
- Audio Output : PGM1,PGM2(Digital or Analog)  
- Control Data Port RS-422  
- Dual Power Supply

송신소, 연주소의 송출단의 입력신호 감지!  
경상적인 신호로 자동으로 결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 FULL COLOR TALLY SYSTEM



Full Color Display  
RED BLUE PURPLE SKY-BLUE  
PURE-GREEN PINK WHITE

## 취급제품 목록

- GPS MASTER CLOCK /  
- DIGITAL TIME DISPLAY  
- FULL COLOR TALLY SYSTEM  
- VIDEO TALLY SYSTEM  
- DIGITAL FRAME  
- INTERCOM SYSTEM  
- LINE MONITOR  
- LCD MONITOR  
- TELEPHONE HYBRID  
- TELEPHONE MULTI  
- SWITCHER SYSTEM  
- HD PANORAMA SYSTEM  
- LEVEL METER  
- CUE TONE GENERATOR  
- AUDIO VIDEO  
- P.D.U / 순차전원공급장치  
- REDUNDANT SWITCH  
- UHD Frame Modul



## 회/원/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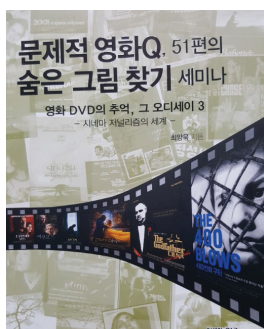


**안계홍(기술)** 해봉 안계홍 회원 산수(傘壽)기념 서예 전시회가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도봉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팔순을 맞은 안 회원이 20여 년간 써 온 40여점의 서예와 문인화 작품들이 선보였다.



**최양묵(편제)** 국내에서 출시된 영화DVD 중 153편의 영화 이야기를 3권의 책으로 엮은 『영화DVD의 추억, 그 오디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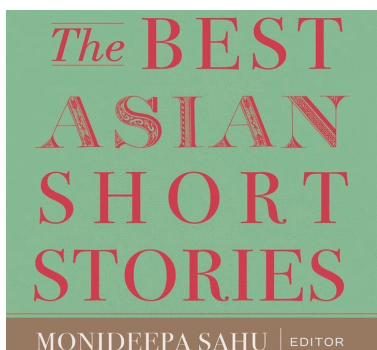
시리즈 세 번째 「문제적 영화Q, 51편의 숨은그림찾기 세미나」를 10월 30일 출간했다.



**황영욱(보도)** 과천시에서 재정은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으로 9월 1일 선임됐다. 황 회원은 역사박물관 등에서 자원봉사자(도슨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박찬순(편제)** 저서 '무당벌레는 꼭대기에서 난다'가 11월에 열리는 "싱가폴 작가 페스티벌"에서 발간되는 '아시아 단편소설 베스트 작품집'에 선정됐다. 이 작품집에는 아시아 8개국 작가들의 단편소설 32편이 수록됐다.



**정수열(편제)** 10월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이흐자삭대학교 교환교수로 선임되어 몽골로 떠났다. 내년 7월까지 이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와 함께 한국의 대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 대한 유학 지도를 담당한다.



**전평국(보도)** 경기대학교 교수직에서 은퇴한 후 자신이 작사한 노래를 취입한 CD를 발표하면서 연예 활동을 시작했다. 전 회원이 작사한 노래는 '한탄강아', '만나야 산다' 등으로 이산가족의 염원을 가사에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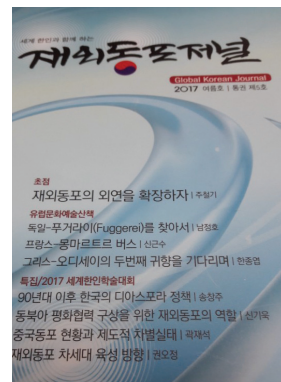
**오태돈(보도)** 2016년 영국 에딘버러에서 한 달간 제작한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다큐멘터리가 11월 3일 KBS TV '열린채널'에서 방영됐다.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은 세계 최대의 예술축제로 매년 8월 한 달간 열리며 3000여점의 작품들이 선보인다. 오 회원은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에서 구성, 연출은 물론 내레이션도 직접 했다.



**유 효 근 (관 리)** 2017년 경기도가 실시한 '생활 공감정책 제안'대회에서 '공공요금 납부방법 개선'안을 제안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유 회원은 현재 의정부시 생활 공감정책 모니터단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기병(관리)** '재외동포저널' 제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신근수의 "몽마르트르 버스에 담긴 애환" 등 유럽 문화예술산책 특집기사들과 함께 박 회원이 주최한 2017년 세계한인 학술대회 관련 기사도 실려 있다.



**최동윤(관리)**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남성합창단 일원으로 11월 11일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최 회원은 2년 전부터 이 합창단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번 정기연주회가 두 번째 참가한 것이다.



## 동/호/회/소/식

## 인사동클럽



라디오PD들의 모임인 인사동클럽(회장 장명호)은 10월 17일 낮 프레스센터에서 정기 모임을 가졌다. 20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번 모임은 전 라디오국장 노혁진(현 MBC플레이비 대표) 사장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서규석 고문 등 원로 회원들과 전 라디오국장 정호식 MBC플러스 부사장도 참석했다. 특히 김포천(사



진) 회원은 불편한 몸을 무릅쓰고 멀리 광주에서 올라와 참석자들의 환영 박수를 받았다. 고

무송 회원은 자신의 신간 '전라도 러브 콘서트'를 회원들에게 한 권씩 전달했다.

## 한문공부동호회

한문공부동호회(회장 양진수)는 11월 21일부터 매주 화요일 「맹자」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 그동안 권혁화 훈장을 중심으로 화요일에는 논어를, 목요일에는 명심보감을 공부해왔는데, 이번에 두 반을

통합해 매주 화요일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사우회 사무실에서 「맹자」를 공부하게 된 것이다. 한문 공부를 희망하는 회원은 사무처 또는 권혁화 훈장(010-3739-0889)에게 신청하면 된다.





## (히)스토리가 있는 사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 공감이 되는 사진, 사진 속에 역사와 애깃거리가 담겨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사진’코너입니다.  
여기 소개하는 사진들을 보시고 덮어뒀던 옛 앨범을 한번 뒤적여 보지 않으시렵니까. 그래서 찾아낸 귀한 사진들의 이야기를 공유하시면  
어떨까요. 사우회원님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 갯벌 때문에 울고 웃던 시절



장 덕 수(편제)

1993년 늦은 봄, 다큐멘터리 ‘갯벌은 살아있다’를 촬영하기 시작했을 즈음의 사진이다.

지친 표정이 역력한 앓던 내 모습이 격세지감과 함께 당시의 힘든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갯벌은 살아있다’는 홀대받고 파괴되는 갯벌생태계의 중요함을 일깨우자는 취지로 기획됐지만, “하필 더럽고 칙칙해 보이는 갯벌을 다루냐”는 주변의 핀잔도 있었다. PD로서는 “저 망망한 갯벌을 어떻게 접근해서 무엇을 촬영해야 할지” 도무지 막막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찍혔을 무렵 나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당시 홍보실에서 찍은 이 사진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다. 37살이던 나의 머리카락이 뭉텅 빠진 걸 발견했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맘고생, 몸고생이 많았던 시절이다. 아무튼, 뭐가 흥미로운 얘기들을 찾아서 촬영 내내 나는 갯벌을 기다시피 뒤지고 다녔다.

촬영 대상인 갯벌생물들은 작고, 대부분 뿔 속에 살기 때문에 찾아내기  
가 힘들었고, 생동감을 살리기 위해 최대한 클로즈업 촬영하다보니 카메  
라팀의 고생이 많았다.

더구나 주변의 우려에 절박함을 느낀 내가 촬영에 조바심쳐댔으니.. 촬영

영을 담당했던 이영삼 선배와 이충국 씨가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갯벌은 살아있다’는 이듬 해 2월에 방송됐고 나는 많은 호평과 상복을 과분할 정도로 누렸다. 녀달 정도 촬영하고 상은 일 년 내내 받으러 다녔더니, 시작단계에서 염려했던 주변 분들이 “장PD는 갯벌을 파먹고 산다”고 핀잔을 줬다.



## 평양에서 겪은 막무가내



문정철(기술)

2002년 9월 27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이미자 씨의 첫 평양공연. 북한 관객들이 객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오후 6시 50분부터 90분간 '남북동시 생방송'되는 프로그램이었다.

문 정 철(기술) 전 스냅들이 준비를 마치고 서울에서 큐 사인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방송 시작 5분전쯤 주위가 소란스럽더니 화면에서 낮이 익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VIP일행이 입장했다. 그런데, 일행 중 책임자로 보이는 한 사람이 현장 기술총감독 최 천 부국장에게 다가 오더니 느닷없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야, 시작하라우”했다.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최 국장에게 그는 또 “야, 날래 시작하라우!” 했다. 최 국장이 “이건 남북동시 생방송이라서 서울에서 사인이 와야...”라고 설명을 하는데 인상을 팍 쓰더니 “야, 시작하려면 하라우!” 완전히 위협이었다. 당황한 최 국장이 뒤에 있던 신종인 제작본부장과 기술본부장인 나에게 다가와 얘기를 나누는 척 잠시 시간을 끄는 동안 다행히 서울에서 큐 사인이 오고 막이 올랐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공연이 끝나고 짐을 정리하는데 북쪽 책임자가 ‘무인카메라 크레인’ 지  
미집을 두고 가라고 했다.

‘우리도 빌려 온 것이라 안 된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두고 가라고 떼를 썼

다. 끝내 거절했  
더니 기분이 상  
했는지 다음 날  
백두산 가는 일  
정을 맘대로 바  
꿔 버렸다. 당시  
그들의 막무가내  
는 또 있었다.

김중배 사장에게 ‘하루 더 묵고 김정일 위원장님을 뵙고 가라’는 것이다. 사장께서 ‘서울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정중히 거절하는데도 그들 특유의 끈질김으로 겁박해 오던 불쾌한 기억.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씁쓸한 추억들이다.







정영환(보도)

‘방송의 꽃’이던 아나운서들의 축구대회가 처음 열린 때는 1970년 4월 26일. 장소는 배재고등학교 운동장이었다. 본격적인 TV(후배)시대를 맞아 재경在京 아나운서들의 단합과 친목을 위해 MBC, KBS, CBS, TBC, DBS 등 5개 방송사가 돌아가면서 주최하는 대규모 대회였다. 축구도 축구지만, 이름만 알고 있던 타 방송사의 당사자를 서로 확인하는 등 잔치집 분위기였고, 나름대로 자기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부심 또한 대단했다. 각 방송사의 사장과 임원들도 격려차 참석했고, 아나운서들은 가족까지 모두 나와 응원 겸 야유회 기분을 만끽했다. 해마다 서울고교, 대신고교, 서울대 문리대 등의 운동장과 도로공사의 넓은 잔디구장을 빌려 성대한 경기가 펼쳐졌다. 1980년 ‘언론통폐합’ 때까지 10년 가깝게 지속됐던 축구대회는, 생방송 또는 당직자를 제외한 모든 아나운서들이 총출동한 행사였기에 ‘아나운서들의 친목의 장’이었지만 일반인들의 관심도 적지 않았다. 당대 인기 최고인 임택근 아나운서를 비롯해 이름이나 목소리만으로 알고 있던 분들의 실물을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많은 학생들과 특히 여성 팬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축구중계 방송을 매끄럽게 진행하는 아나운서들인지라 공도 당연히 잘 찰 것으로 기대했던지 현장을 지켜본 관중들의 반응은 “입으로는 잘도 차드만 발로는 되게 못 차네”였다. ‘캐스터는 캐스터일 뿐 선수가 아니라서’ 말투가 더 쉬운 법인데... MBC는 당시 38세의 임택근 상무가 고문, 최세훈 실장이 단장을 맡았다. KBS는 강찬선, DBS 전영우, TBC 최계환, CBS 조병해 실장 등 아나운서 거목들이 사령탑이었다.

선수층이 두터운 KBS가 유리했으나 MBC는 노력파였다. 프로그램 사·청취율 경쟁하듯 “무슨 일이 있어도 TBC엔 지면 안 된다”는 라이벌 의식도 있었다.

운동장에서의 스타플레이어는 단

연 멀리 높게 차는(똥볼?) 선수지만 우리에게 이런 스타가 없었다. 대신 우리는 공격진이 빨랐다. 이승상, 원병희, 임주완이 중앙 3각 편대였고 특히 임주완은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닌다 해서 “용달차”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MBC선수들은 특정한 포지션이 없이, 대회 현장에서 달리기를 해보고 1,2등을 RW와 LW로 선발하는 순발력을 발휘했다. 자칭 ‘중원의 사령탑’은 주장 변웅전 아나운서지만 의욕과 욕심이 앞서다 보니 체격만큼 헛발질도 컸다. 그러거나 말

작전이나 반칙도 없었고, 오로지 공 굴러가는 곳으로 우르르 몰려다녔다. 오죽했으면 “전설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공 따라 삼천리”라고 했을까. 오프사이드도 없어 상대 GK 코밑까지 파고들어 붙어있으니 밀어내기 육탄전이 벌어지는 등 공과 관계없는 진품경도 속출했다. 예로부터 “아나운서는 품생품사” 인지라 모두가 하나같이 품은 있는 대로 잡았다.

KBS를 이기기 위해 특별작전도 짜봤다. 국가대표 GK출신 이세연 선수를 극비리에 초빙한 것이다. 초빙에 응하기를 망설이는 이세연 씨



〈뒷줄 왼쪽부터〉 박시덕(당시 막내), 이승상(LA 거주), 김 용(작고), 원병희(PD로 전직) 김재영(작고), 정연호, 변웅전, 정영환(기자로 전직), 임양근(작고).

〈앞줄 왼쪽부터〉 차인태, 박재규(작고), 최세훈 실장(작고), 고흥칠(PD로 전직), 김관영(PD로 전직), 조석영. \*맨 앞의 꼬마는 최세훈 실장의 아들 최철수 군.



〈뒷줄 왼쪽부터〉 변웅전, 송재익, 양승현(NY 거주), 김재영(작고), 김관영, 한승권(작고), 이철원(작고), 김찬주(작고), 정연호, 한 사람 건너 김명순, 김 용(작고)

〈앞줄 왼쪽부터〉 정영환, 김충식, 조석영, 고흥칠, 원병희.

거나 그는

“아나운서 축구대회 역사상 MBC 첫 골의 주인공은 바로 나”라고 기억하고 있다.

차인태 아나운서가 모처럼 공을 잡을 때는 ‘장학퀴즈’ 애청자인 여학생들의 금속성 소프라노 함성이 귀를 따갑게 했다.

에게 “너들이 잘해서 유명한 줄 알아? 우리가 중계방송 하면서 너네 이름을 수없이 반복했기에 국가대표로 유명해진 것인데 그 은혜도 모르냐!!”는 ‘유쾌한 청백전’ 변웅전 MC의 험박성 초빙에 못 이긴 이세연 코치의 지도를 받아 3회(74년) 대회를 한 달 앞두고 창덕여중에서



1980. 5. 11 mbc 주최로 열렸던 마지막 아나운서 체육대회 때 만든 기념패.

연습을 통해 경기력을 향상시켰는데 결과는 기대 이상이였다. 이렇게 다져진 우리의 팀웍이 더욱 좋은 방송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고 아나운서실 단합에도 도움이 됐다. “어때요, 축구의 이론과 실재가 너무 다르죠?. 앞으로 중계방송할 때는 선수들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이세연 코치의 뼈있는 부탁이었다.

1976년 대회에선 여자 아나운서가 홍일점 선수로 한 명씩 차출됐고 혼성 400m 릴레이 경기가 추가됐다. 횃수를 거듭하면서 나중에는 종합체육대회로 까지 승격했다. 한 번은 MBC 여자 아나운서들이 우승을 기원하는 특별 보양식 공급을 끌어와 타 사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는데, 정작 선수들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 제대로 뛰지도 못했던 해프닝도 있었다.

아무리 짧아도 하루에 두 게임을 뛰다보니 다음 날은 출근조차 어려울 지경. 영금영금 기다시피 걷는 바람에 뉴스의 기동력도 많이 떨어졌다. 원고를 가지러 가는 7층 보도국 계단조차 오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뛰기도 힘들고 킥도 맘대로 안 되는 어려운 축구를 통해 장안의 아나운서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했던 이 행사는 언론 통폐합이라는 쓰나미가 몰려왔던 1980년 5월, MBC가 주관했던 11회 대회를 끝으로 아쉽게도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우리도 현역 선수시절이 있었다. 아나운서 축구대회, 다시 한 번 해보자!!”

\*붙임: 이 글을 쓰면서 기록의 달인 차인태 아나운서를 비롯해 선, 후배들의 자문을 받았지만, 나이 탓인지 기억들이 조금씩 달랐다. 혹 사실과 다른 기록이 있다면 회원들의 넓은 양해를 구하고 기록을 보완해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 유럽 4개국을 자전거로 달리다(Ⅱ)



김용빈(기술팀)

이태리 밀라노에서 오전에 34km 라이딩을 하고 나서 관광을 했다. 고딕 양식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규모가 큰 밀라노 성당이 기억에 남는다. 나는 같은 방을 쓰는 망전님(별명)과 이태리 포도주 한 병씩을 구입하고 카페에서 시원한 맥주로 관광을 대신하며 휴식했다. 다음날은 베네치아로 이동했다. 베네치아는 입장과 차량 통제가 너무 힘들어 가기 싫은 곳이다. 아침 식사 후 2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달려 간 곳은 코르티나 دام페초 Cortina dampezzo(사진), 이태리

전거포 주인이 지하 창고에 들어가 '자기가 담근 포도주'라고 하면서 여러 병을 담아주며 오늘은 휴식을 취하고 내일 타면 된다고 우리를 달래준다. 오랜만에 술을 한 잔하니 기분도 좋고 술맛도 좋아 얼큰하게 마셨다. 결국 자전거는 거기 창고에 보관하고 호텔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다.

다음 날은 버스 휴식일이다.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버스는 신형 고급 벤츠다. 관광용 버스 기사는 2시간 운용 후 의무적으로 30분 휴식을 취해야 되고, 버스도 7일 운행한 후 의무적으로 하루를 휴식해야지 안 그러면 벌금이 많이 나온단다. 우리는 어제 못 한 라이딩을 위해 호텔에서 택시를 타고 자전거를



스위스 쪽으로 간다는데 배낭과 짐을 많이 실은 자전거는 모터가 달린 고급 자전거다. 중간지점에 도착했을 때에는 돌로미티 자전거 동호인들이 모여 있었다. 우리 팀과 어울려 사진도 찍고 서로 힘든 언어를 표현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상쾌하고 기분 좋은 분위기로 왕복코스를 마치고 돌로미티 마을을 구경한 후 호텔로 향했다. 호텔은 시내에서 5km정도 떨어진 산중턱에 있어서 가파른 언덕을 시작으로 구불구불 고개 길을 올라가야 하는 힘든 코스다. 1시간여 걸려서 전원 무사히 도착해 호텔에서 휴식을 취했다.

다음 날은 오스트리아 크림들로 이동했다. 해발 2,100m 돌로미티 고개길 36km를 넘어서 이탈리아 국경이 가까운 지점까지 자전거로 라이딩을 했다. 계속해서 긴 거리가 오르막으로 연결되어 힘이 들고 어려운 코스다. 고개 정상에 도착하니 주변에는 하얀 눈과 얼음이 있고 산봉우리를 향해 오르는 등산객과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는 관광객들이 눈에 띄고 주변의 넓은 곳은 차동차 여러 대가 있을 뿐 조금 삭막하다. 멀리 보이는 산모퉁이를 돌아 오르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버스가 보인다. 그곳에서 점심

을 먹었다. 메뉴는 햇반에 컵라면과 김치다. 평소 라면을 즐기지 않지만, 별 생각 없이 햇반 밥을 한 입 먹고 컵라면 국물을 떠서 입에 넣고 김치를 먹는 순간, 세상에 맛이 기가 막히다.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생각이 안 난다. 오랜만에 포식했다. 다들 같은 기분인 것 같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크림들로 이동했다. 오스트리아는 처음 와보는 곳이다. 적은 영토에 비해 큰 명성의 나라. 모차르트가 태어난 곳이고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배경. 히틀러도 이곳 오스트리아 태생이다.

오늘이 이번 여행의 마지막 라이딩이다. 몬트제Mondsee로 이동해 두 시간 정도 달리다가 정류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한국 관광객들을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눈다. 점심을 피자 샌드위치로 떼우는 것으로 유럽 4개국 자전거 여행을 마친다. 내일 독일 뮌헨을 거쳐 400km 이상 이동하여 프랑크푸르트로 가고 다음날 귀국하게 된다. 12박 13일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귀국한다니 조금 아쉬운 기분이다.

### 3)돌아와서

귀국 후 첫 번째 수요일모임은 중미산 고개길을 넘는 라이딩 100km를 했고, 6월 모임은 비무장지대를 향해 양구를 출발, 돌산터널을 지나 두타연을 보고 평화의 땀까지 70km를 달렸다.

우리나라 비무장지대의 풍경은 이번 여행지와 비교해도 될 만한 풍경이라고 본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좋은 것은, 산 주변에 음식점이 있고 카페도 있고 주막집도 있어 진미의 음식 맛을 볼 수 있고 숙식도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녀보니 우리나라가 지상 천국이다.



북동부 알프스 산맥 중에 돌로미티 산지내에 있는 작은 도시로 관광지로서 유명한 곳이다. 봉우리 주변은 하얀 눈으로 눈을 뿜 수 없게 압도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돌로미티는 1956년 동계올림픽(1944년 동계올림픽을 결정했으나 2차 세계대전으로 못 치렀음)을 치른 곳으로도 유명하다. 라이딩을 하기로 한 코르티나 دام페초 자전거길 입구에 도착해 자전거 전문점에 들러 쇼핑도하고 자전거의 부실한 곳을 손보고 32km를 왕복하기로 했다.

라이딩 시간이 되어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비를 피해 지하층으로 내려가 쇼핑 못한 사람을 위해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비가 점점 심하게 내린다. 알고보니 일기예보에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많이 내린다고 했단다. 자

둔 쇼핑몰까지 가서 부족한 쇼핑을 간단히 하고 라이딩을 시작했다. 64km를 다녀와서 돌로미티에 있는 호텔(해발 1,760m)까지 자전거로 이동하기로 했다. 가면 갈수록 주변의 경치가 정말 아름답고 보기 힘든 풍경이다. 계곡 깊은 곳에서 흘러내리는 물결과 분위기는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다.

앞에서 만난 부부는 이태리에서





## 전업주부에서 문화해설사로



이혜경(양진수  
ANN의 부인)

올해도 벌써 절반을 지나 두 달 남짓을 남기고 있다. 무더웠던 여름이 선선한 가을바람에 밀려 사라져 간다.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속할 법도 한데, 오히려 무심한 듯 흐르는 시간에 작은 위안을 받는다.

내 결혼생활도 벌써 40년을 바라보고 있다. 7남매 종갓집 만매느리로 들어와 10명 가까운 대식구들을 건사하며 '집안 일은 당연히 내 책임'이라 여기며 식구들을 돌보고, 내 삶의 가치를 '완벽한 전업주부'에 두고 시동생 시누이들의 행복한 웃음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며 살았다.

이렇듯 살림에만 매달려 살던 내게 어느 날 우연히 문화해설이라는 봉사활동의 기회가 찾아왔고,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문화해설사'라는 이름으로 나를 위한 제2의 인생을 시작해 어느덧 10년째를 맞고 있다.

젊은 시절 집안 대소사에 파묻혀 살면서도, 내 나이 예순 즈음엔 내 얼굴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나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자부심을 느낄 만큼 근사한 노년을 맞고 싶었다.

그래서 당장 내 앞에 놓인 일들

을 하루하루 정성을 다해 해냈으며 성심으로 식구들을 돌보고 살림에 전념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쉼 없이 숨 가쁘게 달려온 세월이 시동생들의 결혼과 분가로 한가로운 생활로 바뀌고, 두 아들들이 동시에 군에 입대한 후, 주민센터와 구청 문화센터 일본어 교실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일본어 공부는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들었지만 해보고 싶었던 것이라 그런지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었다' 하고 놀랄 정도로 신나고 즐거웠다.

살림은 뒷전이고 매일 일본어 공부에 매달려 책과 씨름하고 있는 나를 보고 남편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에 수석으로 입학했을 것'이라고 놀렸다.

그 결과 2005년 봄에 공부를 시작하여 2006년 겨울 일본어능력시험 1급을 취득했다. 하지만 1급이라고 해도 회화는 어린아이 수준에도 못 미치는 내 실력이 성에 차지 않아, 일본어 회화 교실을 찾던 중 일본어 카페를 알게 됐다.

그런데 문화센터 회원들과 카페에 갔다가 그곳에서 자원봉사로 일본인에게 관광 안내를 하고 있다는 서울시 문화해설사 한 분을 만났다.

그 분께서 '경복궁 안내 해설을 하고 왔노라'며 자랑스레 명함을

보여 주는데, 이름 석자가 새겨진 그 명함이 얼마나 탐이 났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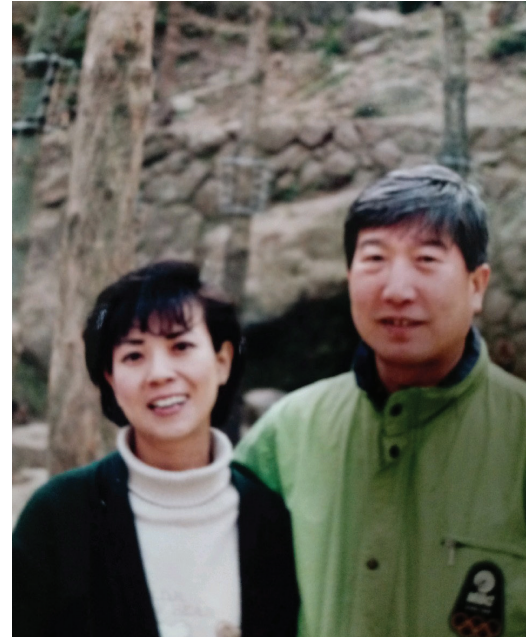
바로 문화해설사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물어 이듬해 봄 서울시 문화해설사 모집에 지원하고, 테스트를 거쳐 운 좋게도 합격했다.

꿈에 그리던 '서울시 문화해설사'가 되어 내 이름이 새겨진 명함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성취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신규해설사 교육을 받으면서 한없이 빈약한 나의 역사 지식에 스스로 좌절하며 다시금 역사공부에 매진하는 험난한 시간을 겪어내야 했다.

일흔 가까이 인생을 살아보니, 무엇 하나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생각이다. '얻는 게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것이 있고, 하나를 잃으면 그만큼 얻어지는 게 있다'는 옛말처럼 우리 삶은 공평하지 않나 싶고, 그렇기에 살아볼 가치가 있는 것 같다.

그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인생을 산다면, 그러한 삶이야말로 참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시집식구들과 함께 한 세월은 마음을 비우고 나를



단련시켜 마음의 수양을 쌓게 한 수행의 시간이었다.

흔한 돌맹이 원석 같았던 나를 찬란한 빛을 발하는 보석으로 만들어 준 시간이었고, 시댁식구들 모두가 현재의 내가 있도록 훈련시켜 준 고마운 존재였다.

서울시 문화관광 일본어 해설사로 작은 사회봉사를 하고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무엇을 하든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응원해 준 시댁식구들이 있어 가능한 것이었다.

많은 식구들 속에 엄마의 일이 조금이라도 수월하도록 돕직하게 잘 커준 두 아들과, 시댁식구들과의 좋은 인연을 맺도록 연결고리가 되어 늘 나를 믿어주고 든든한 후원자로 옆에서 지켜봐 준 남편 양진수씨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더케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자한  
**The-K 에다함상조**

### 대쪽보다 올곧은 정직의 예



에다함은 한국교직원공제가 100% 출자한 상호회사입니다.  
믿음과 정직이 먼저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  
상조회사의 본보기가 될 1등의 예를 만들고 있습니다.

※ **MBC 사우회와 2017년 8월 16일 업무협약 체결!**  
(사우회원과 가족에게 최고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국내 최대**, 자본금 500억원  
- 공정위 '2016년 상조업 주요정보 공개' 보도자료 기준  
· **국내 유일**, 한국교직원공제회 연대 지급보증

· **국내 최대**, 3개 은행사 지급보증  
-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 **국내 최고 수준**, 지급여력비율 114%

· 3개년 연속 흑자 실현(총 79억)  
· **자산증가율 28%**  
- 총 자산순위 상위 4개 업체 중 1위 (2016년 기준)

**가입문의 1566-6644**  
www.yedaham.co.kr